



도덕철학

추정완

아리스토텔레스

1.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의 개요
2.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
3.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에 대한 비판

1.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의 개요

윤리학 : 행위의 옳고 그름에 대한 절대적 증명(과학적 논증)이나 정의를 추구하기 어렵다. 따라서 윤리학은 수학과 같은 엄밀한 학문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행위의 결과를 정확히 예견할 수 없고, 행위의 결정이 절대적 인과율에 지배되지 않기 때문이다.

-> 윤리학은 귀납적 방법을 택한다. 보편적 원리에서 개별적 사례에 대한 판단을 추론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 사례들로부터 보편적 원리를 추론한다.

1.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의 개요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

- 형상 + 질료 $\Rightarrow$ 물(物) $\Rightarrow$ 운동 $\Rightarrow$ 목적

- 형상과 질료

- 형상은 본질, 현실태/ 질료는 실체를 구성하는 재료로 가능태(수동성)
- 형상은 플라톤과 달리 보편적 형상이 아닌 개개의 형상으로 시작하여 질료와는 떨어질 수 없음
- 질료는 재료로써 이것이 형상이 가해짐에 따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일정한 물(物)이 됨

- 제일원인

제일질료: 모든 실체들이 그것으로부터 생겨난 무언간의 존재 $\rightarrow$ 어떤 형상도 더해지지 않은 질료

순수형상: 제1질료의 반대쪽에 있는 것으로 어떤 질료를 통해서도 실체화되는 않은 형상 자체

($\rightarrow$ 부동의 동자: 운동의 궁극 원인으로 자신은 움직여지지 않고, 다른 것을 움직이는 원인, 자기 외 에는 사유의 대상을 가지지 않는 사유의 사유 $\Rightarrow$ 만물의 창조자: 신)

1.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의 개요

1) **목적론적 세계관** : 인간을 포함한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 목적의 실현이 최고선.

“모든 기술과 탐구, 모든 행동과 추구는
어떤 좋은 것[善, (agathon tinos, something good)]을 목표로 삼는다.”

-《니코마코스윤리학》

⇒ 개별적 행위에서의 목적은 그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보다 높은 목적을 위한 수단 (궁극목적)

- 어떤 것의 목적이 되는 바는 선이다.
- 선 중에는 그 자체로 추구되는 선이 있을 것이다.
- 즉, 다른 어떤 것을 위해 추구되는 선이 아니라 그것 자체를 위해 추구되는 선.
- 궁극적 선, 최고선(to ariston, summum bonum, the supreme good, the ultimate good)이 있을 것이다.

1.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의 개요

① 궁극 목적

: 그 자체를 위하여 소망이 되는 것→ 인생의 최고선/ 행위를 통해서 추구되는 모든 선들 중 최고의 것

• 궁극 목적은 존재하는가에 대한 논증

- ㉠ 궁극 목적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욕구하는 목적이 다른 어떤 목적에 의존하는 과정이 끝없이 계속 되는 무한 소급으로 이어짐(욕구의 연쇄)
- ㉡ 끊임없이 이어지는 요구나 목적은 결코 최종의 목적에 도달할 수 없기에 그 어떤 개별적인 욕구도 공허하고 허무할 것
 - ↳ ㉡' 최초의 욕구를 완전하게 정당화 할 수 없기에 개별적인 욕구들은 그 자체 역시 정당화 될 수 없음 (∴ 모든 존재는 그 자체로서 욕구하지 않게 됨)
- ㉢ 그러므로 욕구의 연쇄의 제일 끝에 놓이는, 욕구의 소급을 끝내는 다른 모든 것을 욕구하는 유일한 궁극 목적이 존재할 수밖에 없음

1.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의 개요

② 궁극목적의 실체

궁극목적=최상의 선=최고 선⇒ 행복(eudaimonia) 혹은 인간으로서의 성공적 삶

- 사람들은 행복이 최고선이라고 말한다.
- 행복은 다른 무엇을 위한 수단으로써 추구되는 바가 아니다. 또 행복에는 다른 어떤 것을 보탬 필요가 없다.
- 행복(eudaimonia)이 최고선이다.
- 최고선의 기준?
 - 궁극성 : 오직 그것을 위해 다른 모든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목적이어야 함
 - 무조건적 완전성 : 오직 그 자체로서만 가치를 지니며 다른 어떤 것에 대한 수단이 되서는 안됨
 - 자기 충족성 : 다른 어떤 것이 더해지지 않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삶을 더욱 바람직하게 만든 유일한 목적이어야 함 (완전성과 유사한 의미를 지님)

1.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의 개요

(2) **행복** : 인간이 추구해야할 궁극적 목적[最高善].

인간의 고유한 기능[이성]뿐만 아니라 욕구와 감정의 모든 측면을
완전히 발휘할 때 얻어진다. 즉, 행복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 덕+외부적인 선 > 필요

Q. 그런데 무엇이 행복인가?

1. 쾌락, 2. 명예, 3. 덕, 4. 재산 5. 선의 이데아

1.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의 개요

- • '쾌락' - 노예나 짐승의 목적이 될 수는 있을지는 모르나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선한 쾌락을 추구해도 되는가? - 쾌락은 선의 부산물일뿐임)
- • '명예' - "명예란 그것을 받는 사람보다도 주는 이에게 달려 있다". 따라서 그렇게 피동적이고 우연적인 것을 행복, 즉 인생의 목표로 볼 수는 없다.
- • '덕' - 덕도 그 자체로 행복이 될 수는 없다.
- ⇒ (a) 덕이란 한갓 능력으로서 전혀 발휘됨이 없이 잠잘 수도 있으며,
(b) 덕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참한 생애를 보낼 수도 있다.
- '재산' - 재물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다른 것을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행복이 될 수 없다.
- '선의 이데아(플라톤)'에 대한 얕 -
 - (a) '선'이라는 말이 경우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다.
 - (b) 현실적인 좋은 것들을 떠나서 ' 좋음' 그 자체라든가 좋음의 원형(原型)이라는 것이 따로 없다.
 - (c) 설령 선의 '이데아'가 있다하더라도 그것이 이 지상 생활에 있어서의 실천생활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으므로 행복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1.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의 개요

∴ '행복'은 무엇인가? : 행복은 어떤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 활동하는 과정 그 자체이다.
그 자체로 욕구 되는 것이며 현실적인 것임

“행복은 완전한 덕을 따르는(kat' aretēn teleian) 영혼의 어떤 활동이다.”

'행복하다 → 잘산다 → 잘한다 → 기능을 잘 발휘한다 → 인간으로서의 기능을 잘 발휘한다
→행복하다.

☞ 세계 안의 모든 것은 자신의 고유한 기능(ergon)을 지니고 있으며 이 기능은 그것의 “선”이 무엇인지를 밝혀 줌 ⇒ 인간이기 때문에 갖게 되는 기능은 무엇인가?

1.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의 개요

“행복은 상태가 아니라 활동이다.”

“행복한 생활은 덕 있는 생활이라 생각된다. 덕 있는 생활은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요, 오락적인 것이 아니다.”

“행복은 덕을 따른 활동이고, 최고의 덕을 따른 활동이다. 우리의 본성에 있는 신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덕을 따른 활동이 최고의 행복이다. 그것은 관조적인 것이다.”

“우리는 결국 ‘인간이니 인간적인 일을, 또 사멸할 것이니 사멸할 것들을 생각하라’는 권고를 따를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 자신을 불사불멸의 것이 되게 하고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최선의 것을 다라 살도록 온갖 힘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

“사람에게는 이성을 따른 생활이 가장 좋고 즐거운 것이다. 이성은 다른 무엇보다 인간을 인간답게 한다.”

1.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의 개요

- 다른 품성의 덕이 행복으로 귀결되기 위해서는 외부적인 선이 요구된다.
- 하지만 이성의 덕은 외부적인 조건을 조금밖에 요구하지 않는다.

“인간의 모든 활동 가운데서 신의 활동을 가장 많이 닮은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

“행복은 '순수관조'(theōria, contemplation)와 똑같은 범위에 달려 있으며, 또 관조를 더욱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행복하다. 행복은 순수 관조에 그저 수반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 관조 속에 깃들어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속성을 누구보다도 많이 지니고 있는 것은 철학자(sophos, the wise, philosopher)임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철학자는 신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그리고 철학자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1.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의 개요

(3) 인간의 기능

- 사유를 본질로 삼는 이성의 기능(ergon, function)을 유감없이 잘 발휘함이 인간의 좋은 삶이요, 그것이 곧 인간의 행복이며 궁극목적이다.
 - 기능의 항시적 발휘가 행복을 가져다 주는데 이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경향 내지 습성이 필요, 즉, 습성인 덕이 필요(덕은 행복을 위한 불가결한 바탕)
 - 인간의 고유 기능: 이성 (이성을 소유하고 있다는 말의 의미)
 - 이성적인 부분 (to logon, the rational) : 1) 추론능력, 이론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성적 원리)
2) 이성에 귀 기울이고, 따르고, 순종하는 부분
 - 비이성적인 부분 (to alogon, the irrational): 1) 식물적인 부분 (인간적인 덕과 무관)
2) 욕구 관련 부분: 이성에 따를 수 있는 부분
- ⇒ 최고선(행복): 두 가지의 이성적 능력을 현실적으로 발휘하는 것

1.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의 개요

- (4) 德(aretē = 이성을 포함한 인간의 모든 기능ergon을 탁월하게 수행하는 것)
지적인 덕(tas dianoētikas, the intellectual virtues) +
도덕(성품)적인 덕(tas ēthikas, the moral virtues)

덕의 특징 : 덕은 단순히 지식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선한 행위를 실천하려는
도덕적 실천의지가 필요하며, 그래야 실현 가능함

[Why 인간은 선악을 알면서도 일시적 충동에 의해서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룰 수 있음]
(∴ 지덕복합일설은 수용하지만,知行合一은 인정 안함)

1.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의 개요

참고 1. 주지주의 vs 주의주의

- 주지주의 : 지식을 중시하는 입장 → 악은 무지에서 나오고 모든 덕은 참된 앎에서 나옴
- 주의주의 : 의지를 중시하는 입장 → 덕은 선한 행위를 실천하려는 선의지가 있을 때만 가능
- 소크라테스/플라톤 : 주지주의
- 아리스토텔레스 : 주지주의 + 주의주의

※ 이성의 역할을 중시하면서도, 주의주의(主意主義)적 측면 가미

☞ 인간의 지식과 행위 선택의 자유의지, 그에 따른 도덕상의 책임 문제 제시

1.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의 개요

(5) 덕과 행복의 관계

- 덕(arete:탁월함):각각의 기능은 거기에 알맞은 적절한 덕과 더불어 완전하게 표현될 경우에만 완성
- 행복: 이성의 발휘를 통한 덕의 추구 시 도달하게 되는 것(덕을 드러내는 영혼의 활동)
⇒ 이성적 덕으로 가득 찬 삶이 행복의 본질이며 이는 일상적인 만족감으로의 행복이 아닌 성숙한 삶을 포괄하는 객관적 문제

그렇다면 유덕한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영속적인 품성의 결과로서 이성적 행위 그 자체를 위하여 이성적으로 행위 하는 사람 (로스가 본 아리스토텔레스의 유덕한 사람)

- 옳은 행위: 중용의 한 예.

옳은 일을 옳은 사람에게 옳은 목적으로 위하여 옳은 방법으로 옳은 한도에서 행하는 것

- 덕: 옳은 행동을 습관이 되도록 규칙적으로 반복하여 얻는 개인의 인격적 특성
⇒ 덕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도 옳은 행동을 할 수는 있으며, 덕이 있는 사람이라도 나쁜 행동을 할 수도 있음

1.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의 개요

(6) 중용(中庸) 선의지의 함양을 위한 실천적 덕. 이성에 의해 충동, 정욕, 감정 등을 억제함으로써 치우치지 않으려는 의지를 습관화 한 덕
ex) 비겁←용기→무모. 인색←절약→낭비. 비굴←금지→교만

(7) 인간은 정치적 동물 : 개인의 이성적 자아실현은 사회나 국가에서 도덕을 실천할 때 가능
⇒ 개인윤리를 사회, 국가 윤리와 결부시킴

2.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

1.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문적 경향 비교

플라톤(BC 427-347)	아리스토텔레스(BC 384-322)
· 소크라테스를 진리 이상으로 흠모 · 父: 정치적 기반 · 심포지엄(심+피노; 토론 with 술) · 대화식 저서/종합적 · 시적표현, 비유 등 예술적 재능 뛰어남 · 학문의 모델: 기하학 · 초월적 실재(idea)로부터 논의 출발 (von oben) · : 제일원리로부터의 논의(연역적 탐구) · 예술의 사회성 강조	· 스승인 플라톤만큼 진리를 사랑함 · 父: 마케도니아 왕의 의사(이과) · 소요학파(逍遙 나무사이를 걸으며 가르침) · 서술식 저서/분석적 · 냉철한 논리, 조직적 사고 · 학문의 모델: 생물학 · 현실/경험으로부터 논의 출발 (von unten) · : 제일원리를 향한 논의(귀납적 탐구) · 예술의 자율성 강조

2.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

2. 플라톤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비판의 초점

- (1) 플라톤의 형상 이론(이데아 이론- 사물의 본질인 형상은 현상계와 분리된 비공간적/초월적인 영역에 존재한다는 이론)에 대한 비판

→ “우리는 친구들과 진리 모두를 사랑하지만 친구보다 진리를 더욱 고귀하게 여기는 것이 경건한 태도이다.”
《니코마코스윤리학》(1096a15)

- (2)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에 비하여 감각적이고 경험적인 지식을 훨씬 더 중요시한다.

현실의 구체적인 삶으로부터 좋은 삶을 탐구

2.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

3. 개인의 자아실현과 공동체

(1) 인간의 삶에 관한 철학 :

《니코마코스윤리학》 (개별 인간에 있어서의 선) + 《정치학》 (공동체 안에서의 인간을 위한 선)

(2) 인간에 관한 두 가지 정의《정치학》

- “인간은 이성(logos)을 가진 동물이다.” : 이성을 지녔다는 말은 다음 두 가지를 의미함
추론능력(영혼의 이성적 부분) + 이성을 따를 수 있는 능력(영혼의 비이성적 부분 중 욕구)
- “인간은 본성적으로 정치적인 동물(political animal)이다.”
: 시민사회(polis) 안에서만 자아실현 가능

2.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

2. 플라톤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비판의 초점

- (1) 플라톤의 형상 이론(이데아 이론- 사물의 본질인 형상은 현상계와 분리된 비공간적/초월적인 영역에 존재한다는 이론)에 대한 비판

→ “우리는 친구들과 진리 모두를 사랑하지만 친구보다 진리를 더욱 고귀하게 여기는 것이 경건한 태도이다.”
《니코마코스윤리학》(1096a15)

- 윤리학 영역에서 플라톤의 신비주의적인 선의 형상 개념 거부

- (2)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에 비하여 감각적이고 경험적인 지식을 훨씬 더 중요시한다.

현실의 구체적인 삶으로부터 좋은 삶을 탐구

☞ 플라톤이 정립했던 추상적인 사고방식으로서의 존재 설명을 자연 속에서 설명하고자 함

2.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

3. 개인의 자아실현과 공동체

- 본성상 국가나 가정은 개인보다 먼저 있음 (← 전체는 부분보다 앞서 있는 필연이기 때문)
- 모든 사회가 선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므로 모든 사회를 포괄하고 있는 최고의 사회인 국가는 최고의 선을 목적으로 함 → 국가는 개인에 앞섬(현실태가 가능태에 앞서는 것)
- 개인이 선으로 향하게 되는 원인은 바로 국가이며, 국가의 참된 목적은 국민이 선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여 전체의 행복을 실현하는 것
- 인간의 윤리적인 목적은 국가에서 완성되는 것임 But, 최고의 이상은 테오리아의 생활, 그 외는 행위의 수단이 될 뿐임 ⇒ 최고의 목적: 윤리적인 이상

2.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

4. 지적인 덕과 도덕(성품)적인 덕

지적인 덕 intellectual virtues	·의미 : 사물의 이치를 인식하고 항상 올바른 행동을 계획하는 지적인 능력 ·상부 : 교육 통해 습득 ·인간의 사유/이론 활동에 관계 · 지적인 덕의 5단계 : 추리력, 예능, 실천적 지혜, 직관적 지혜, 이론적 지혜 CF. 실천적 지혜(phronēsis; practical wisdom), 학적 인식(epistēmē), 기술(technē), 이성(nous), 지혜(sophia) (a) 인간은 그 본성을 따라 활동할 때 참으로 행복한 것이며, 이 행복의 실현이 인간적인 선의 최고봉 (b) 인간의 본성 가운데서도 가장 존귀한 것은 이성적 기능이며 (c) 이성적 행위 가운데서도 가장 존귀한 것은 이론의 인식 즉 철학적 진리의 파악 그리고 파악된 진리를 조용히 명상함에 행복의 극치가 있다. • 행복의 극치 도달의 조건; 천부의 재능, 시간의 여유, 마음의 평화, 재산, 좋은 친구
도덕(성품)적인 덕 virtues of character moral virtues	·토대 ·습관 통해 습득 ·인간의 행위/실천 활동에 관계 ·관용, 인내, 용기, 관대, 정의 등 감정/정서/욕구/의지 성품의 덕은 습관으로부터 생긴다(hē ēthikē eks ethous).

2.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

4. 지적인 덕과 도덕(성품)적인 덕

◆ 실천이성의 덕들(실천적 지혜)

- 의미: 이성적으로 계산하는 부분들 ⇒ 영혼이 행복에 도달하도록 돕는 것
- 특징: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올바른 행위를 함에 있어 한 개인의 본성이 잘 작용하도록 자신의 덕을 드러내는 것 ⇒ 실천적 지혜 또는 실천적 지성을 드러냄(파악과 이해가 서로 협력하여 덕이 있는 행위 또는 감정을 결정함)
 - 심사숙고를 통하여 자신을 드러냄 → 이성과 욕구의 작용을 통하여 욕구가 이성에 의해서 조절되어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도록 하는 과정(파악과 이해의 덕 포함)⇒감정 및 행위와 관련된 중요 결정
 - 주요임무: 영혼의 비이성적인 부분에 속하는 욕망과 느낌, 감정들을 인도하여 이들이 특수한 여러 상황들에서 중용에 해당하는 감정이나 행위를 하도록 만드는 것

※도덕적인 덕계발⇨지적인 덕들의 성숙⇨자아실현[행복]

:인간은 행복해지기 위해 먼저 덕을 지닌 도덕적 존재가 되어야 한다.

2.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

4. 지적인 덕과 도덕(성품)적인 덕

◆ 도덕(성품)적인 덕

➤ 품성의 덕은 본성적으로(by nature, physei) 생기는 것도 아니고, 본성에 반하여 생기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그것을 본성적으로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으며, 습관에 의해 완성된다.

- 품성의 덕은 실천을 통해서 얻어진다.
- 품성의 덕은 이론적 인식과는 다르다.

“행위를 하지 않고, 이론에 도피하여 자기는 철학자요, 철학을 함으로써 선하게 되려니 생각하는 사람들이 만다. 이들의 태도는 마치 의사의 말을 주의하여 듣기는 하면서도 그 명령을 전혀 지키지 않는 환자의 태도와 같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소크라테스 식의 주지주의를 반대한다.

➤ 품성의 덕은 우리의 영혼 속에 생기는 세 가지 것, 정념, 능력, 성품 중에 어느 하나이다.
덕은 정념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성품이다.

2.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

4. 지적인 덕과 도덕(성품)적인 덕

◆ 도덕(성품)적인 덕

품성의 덕은 부족(defect)이나 과도(excess)가 없는 중용이다.

“그러므로 (품성의) 덕이란 ‘중용에서’(en mesotēti, in the mean 성립하는 행위 선택의 성품이다.

이때의 중용은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중용이요,

이 중용은 ‘이성적 원리’(logo, by principle)에 의하여

그리고 ‘실제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ho phronimos, the prudent man)이

그것을 결정할 때에 기준으로 삼을 원리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2.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

5. 중용의 이론 : 덕이란 습관화된 중용

“마땅한(적절한) 때에, 마땅한(적절한) 일에 대하여, 마땅한(적절한) 사람들에게 대하여, 마땅한(적절한) 동기로, 마땅한(적절한) 태도로 느끼거나 행하는 것으로서 중간적이며, 최선의 것이다.”

《니코마코스윤리학》(1106b20-24)

※ 덕은 a.행위를 결정하는 우리의 본성의 상태이며, b.중용을 통해서 구성되며, c. 우리 각자에 따라서 상대적이며, d.이성의 명령을 통해서 정의된다. 덕의 교육가능성 (본성 + 습관 + 실천적 지혜)

2.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

5. 중용의 이론 : 덕이란 습관화된 중용

감정 또는 느낌	부족함	중용	과도함
·두려움 ·쾌락과 고통 ·금전관계 ·거액을 희사함 ·명예와 불명예 ·분노 ·재미와 웃음	무모 무감각 인색 탐욕 비굴 무기력 무뚝뚝함	용기 절제 절약 관용 금지 온화 재치	비겁 방탕 낭비 천박 허영 성급함 허풍

2.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

5. 중용의 이론 : 중용의 특징

- 상대적인 중간점: 각각의 경우와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게 마련임
- 객관주의적인 입장: 사람들은 각각의 상황을 바탕으로 덕이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요소에 따라서 다르게 행위 하지만, 사람들이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을 경우, 이성에 의해서 그들은 동일한(유사한) 행위를 하게 된다.
- 절제에 관한 이론이 아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남
- 올바른 본성의 상태로 중용을 행해야 그 행위가 자신에게 쾌락을 가져다 줌
- 모든 행위나 감정에 중용이 존재하는 것은 아님(ex-그 자체로 그릇된 질투나 간음)
- 중용을 행함에 있어서 각 개인은 항상 이성의 판단에 따라 결정(선택)해야 함
- 중용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높은 직관적 식견이 필요

2.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

6. 의지의 문제

- 의미: 선하다고 인식된 것을 행하지 않거나 선하지 않다고 인식된 것을 행하는 것과 관련
- 소크라테스의 입장: 이러한 가능성을 부정 ← 앎이란 곧 행위를 뜻함(주지주의)
- 플라톤의 입장: 이성과 정욕을 분리 ← 심리학적 이론 제시
-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
 - 지식을 소유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서로 구별 ⇒ ㉠올바른 정신 ㉡무의식이나 술 취했을 경우
⇒ 의지의 나약함(akrasia)은 후자 즉, 무의식이나 술 취했을 경우를 의미함
 - 욕망이 우리의 인식을 가리는 문제: 실천적 추론의 영향력이 나의 욕구에 의해서 가려졌기 때문에
실천적 추론이 명령한 바를 실행하지 못함

2.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

6. 의지의 문제

-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

자발적(ekousion, voluntary) 정념이나 행동에 대해서는 칭찬과 비난이 가해진다.
그러나 비자발적인 것(akousion, involuntary)에는 그렇지 않다.

- > 비자발적 정념이나 행동에는 1) 강제에 의한 것, 2) 무지에 의한 것이 있다.
- > 무지에 의한 정념이나 행동이 모두 비난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 혹은 용서를 받는 것은 아니다.
- > 마땅히 알아야 하는 인간의 덕에 대해서 무지한 것은 비난의 대상이 된다.
- > 노여움이나 욕망과 같은 정념에 의한 행동은 비자발적인 행동이 결코 아니다.

2.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

7. 정의(justice)의 문제

“사람들은 정의를 옳은 일을 하게 하는 것, 옳은 태도로 행동하게 하는 것, 옳은 것을 원하게 하는 성품이라고 말한다.”

정의(dikaiosyne, justice)는 가장 완전한 덕이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미치기도 하지만 동시에 타인에게 미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타인은 사람들, 사회, 국가로 이어지고, 곧 법률로 이어진다.

“우리는 국가적 공동체를 위하여 행복 혹은 행복의 조건들을 산출하고 보전하게 되는 행위를 옳은 행위라고 부른다.”

2.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

7. 정의(justice)의 문제

- 정의에는 보편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가 있다.
- 보편적 정의는 법에 만민이 동등하게 대우 받는 것을 의미한다.
- 특수적 정의에는 분배적 정의와 교정적(시정적) 정의가 있다.
- 특수적 정의 1. 분배적 정의(가치 배분) : 기하학적 비례
 - 1) 분배받는 당사자, 2) 분배되는 몫, 3) 그 사이의 성립하는 균등, 4) 중간
- 분배적 정의는 비례적인 것이다. 비례적인 것은 중간적인 것이다. 비례를 맞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 특수적 정의 2. 교정적(시정적) 정의 : 인간 상호 관계(교섭)에서의 손실과 이득의 중간 : 산술적 비례
 - > 인간의 상호 교섭에는 판매, 구매, 대금, 전당, 대여 등의 유의적인 것(자의적인 것)이 있고, 무의적인 것(비자의적인 것)에는 (a) 절도, 간음, 독살 등의 은밀한 것과, (b) 구타, 감금, 살인, 치상 등의 폭력적인 것이 있다.
 - > 시정적 정의 역시 균등한 것, 중간의 것에서 성립한다.
 - =>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서 둘(two)을 의미하는 duo에서 정의로운(just)을 의미하는 dikaios가 왔다고 설명하고 있다. Duo>dis>dixa>dike>dikaios>dikaiosyne.

3.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에 대한 비판

(1)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생물학에 대한 비판

(매킨타이어, ← 인간의 목적을 다른 어떤 것(사회적 관행)에 기초하여 설명 가능하다만, 아리스토텔레스의 덕 윤리 긍정적으로 수용)

ex. 다른 모든 종과 마찬가지로 인간 역시 자신의 고유한 본성(형상)을 실현하고자 함.

이때 형상(eidos)은 목적(telos)의 역할을 함.

(2) 본질주의적 사고에 대한 비판: “인간은 이성이라는 본질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 그러나 모든 인간이 이성적이며, 동일한 방식으로 이성을 소유하고 있는가? 인간의 본질이 왜 이성인가?

(3) ‘행복의 성취가 자신의 본질을 실현하였음을 보여주는 표식인가’에 대한 비판.

혹시 우리 중 가장 이성적인 사람이 삶을 완전히 파악한 후 비관적으로 될 수도 있지 않은가?

3.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에 대한 비판

- (4) 이성의 분유(나누어 가짐)정도에 따라 신분제도를 정당화한 것 비판: 브래들리
아리스토텔레스는 당시 부유층의 행동양식에 적용된 윤리기준을 일반화함
- (5) 모든 행복의 철학은 그 차체로서 결코 행복이라 불려질 수 없는 어떤 것의 부산물로 얻어지므로,
행복의 직접적 추구가 불가능하다는 '쾌락주의 역설'(hedonistic paradox)에 부딪친다.
(모든 사람들이 택할 수 있는 행복 추구의 방법이 없는 것 아니냐)
- (6) 중용이 우리들 각각에 따라 상대적인데, 유덕한 사람을 판별하기 위한 독립적인 기준에 대한 논의 없다.

3.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에 대한 비판

(7) '고의적이 아닌 행위'에의 책임에 대한 비판

- Aristotle의 입장:

- (a) 고의가 아닌 행위는 그 원인이 행위자의 인격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밖에 있기 때문이며,
- (b) 이는 행위자의 의지가 지배하는 범위 밖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는 행위자로서도 어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책임을 묻는 것은 불합리함

⇒ 반론a) 인격만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전제에서 파생되는 책임 개념의 좁은 범위

⇒ 반론b) 의지의 결정은 인과율적 필연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믿음의 근거의 부족